

배짱 있지...컨트롤 좋지...변화구로 카운트 잡지...

# 임준섭, SUN 눈에 쏙~ 들었다

NC전 5.1이닝 1실점

KIA 7-5 승리 이끌어



좌완 임준섭의 선발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KIA 타이거즈가 19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임준섭의 호투 속에 7-5 승리를 거뒀다.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 나선 2년차 중견인 임준섭은 5.1이닝 동안 사사구 없이 4개의 안타만 내주며 NC 타선을 1실점으로 막았다. 탈삼진도 4개를 뽑아냈다.

임준섭에게 이번 경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KIA는 윤석민과 김진우가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 시즌 초반 선발진 공백이 불가피하다. 선동열 감독이 선발후보로 지목한 인물이 바로 임준섭이다.

임준섭은 이날 피칭을 통해 선 감독이 주목하는 4개의 항목 중 3개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첫째는 배짱, 둘째는 컨트롤, 셋째는 변화구 카운트.

선 감독이 투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심장'. "훈련은 부족하다는 자세로, 마운드에서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하라"고 주문한다.

65개의 공을 던진 임준섭은 45개를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넣었다. 주눅들지 않은 공격적인 피칭으로 볼넷은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

컨트롤도 훌륭했다. '컨트롤 우신'인 선 감독 앞에서 임준섭은 좌우를 충분히 활용한 컨트롤을 선보였다. 전반적으로 공도 낮게 낮게 컨트롤 되면서 내야수들이 바쁘게 뛰어다녔다. 심장과 컨트롤이 투수의 필수항목이라면 '변화구를 활용한 카운트잡기'는 선 감독이 얘기하는 업그레이드 옵션이다. 팬층은 투수에서 훌륭한 투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변화구를 결정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 감독의 지론.

임준섭은 2회 선두타자로 나온 5번 권회동과의 승부에서 심화과정을 통과했다. 1B-2S의 볼카운트에서 임준섭이 결정구로 선택한 것은 변화구였다. 바깥쪽 꺾인 코스로 떨어진 커브에 주심의 손이 올라갔다. 배짱과 컨트롤이 바탕이 된 승부였다.

선 감독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 임준섭이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경기 NC-기아전. 1회초 기아 선발 임준섭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만 A+를 받기 위해서는 남은 하나, '스피드'에서도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임준섭의 직구 최고 구속은 138km에 그쳤다. 선 감독이 140km 중반대의 스피드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 등판에서 기록한 142km보다 오히려 줄었다. 스피드가 임준섭의 마지막 과제다.

한편 이날 KIA는 1회에만 타자일순한 끝

에 5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김주찬이 첫 출루에서 2개의 도루에 성공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나지완은 4타수 3안타 4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야수진에서 생존한 무기 고영우도 시범경기 첫 안타로 2타점을 기록했고, 3투수로 나선 깔끔한 수비로 눈길을 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는 울고싶다

■ 무심한 프로축구연맹 개막 1주일 전 이름 바꿔 경기 일정도 뒤늦게 통보

■ 1부 구단의 이기주의 에이전트 끊임없는 유혹 주전선수 잇따라 떠나다

■ 클래식 승격 원천봉쇄 2부서 어렵게 우승 해도 1부 12위 팀과 PO겨쳐야

오랜 진통 끝에 탄생한 광주 FC는 2011년 시민구단 창단 첫해 최다승(9승)을 기록했다. 이승기·박기동·김동섭 등은 태극마크를 달고 신생팀 광주의 저력을 알렸다. 2012시즌 초반에는 잠시나마 1위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그만큼 광주의 2013시즌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2011년 말 승강제가 K리그의 화두가 됐다. 연맹이 급하게 추진한 승강제에 시민 구단들은 "기업구단의 입맛에 맞춘 일방적인 승강제 도입을 반대한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2부리그의 기본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승강제의 칼날이 향할 곳이 뻔했기 때문이다. 강등 1순위로 지목됐던 광주는 결국 경험부족과 안락의 잠에 속어 강등팀의 운명을 맞았다.

어려운 시즌이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광주의 봄은 생각보다 잔인하다.

준비 소홀 프로축구연맹 시민들과 팬의 관심이 프로축구구단의 기반이지만 연맹의 극장 대처에 2부 팀들은 속이 탄다.

뒤늦게 8개팀으로 2부 리그를 꾸린 연맹은 개막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리그 명칭을 K리그 챌린지로 바꿨다.

지난 1월 연맹은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첫 승강제가 도입됐다고 자찬을 하며 1부리그는 K리그 클래식, 2부리그는 K리그 그대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프로축구를 통칭하는 'K리그'와 혼선을 준다며 개막을 며칠 앞두고 K리그 챌린지로 이름을 교체했다.

발표 단계에서부터 나왔던 논란은 2부리그 8개 대표들의 견의 속에 개막 직전에 마무리됐다.

경기시간 등 구체적인 일정도 개막이 임박해서야 각 구단에 통보되는 등 2부리그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선수 유출 문제도 연맹에게는 관심 밖의 사안이다.

타 구단의 이기주의 가장 광주를 힘들게 하는 것은 타 구단들의 이기주의이다.

시민구단 광주는 창단과 함께 기업

에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구단은 이적료를 받고 선수를 보낼 수 있다.

이적료를 포기하고서라도 선수를 잡을 수 있지만 사기 저하와 심하면 태업 등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선수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광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적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있는 셈이다.

1부 진입 막는 악순환 선수 수급에 한계가 있지만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어렵게 2부리그 우승을 한다고 해도 1부리그 12위 팀과 다시 플레이 오프를 겨쳐야 한다. 현재의 악순환 속에서는 승격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올 시즌 도입되는 자유선발 제도도 남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연맹은 2016년부터 드래프트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자유선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 시즌 자유선발 선수는 구단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계약기간은 5년, 계약금은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연봉은 3600만 원이다.

제정이 풍부한 기업 구단들은 최고의 계약금을 제시하며 좋은 선수를 선출할 수 있지만 2부리그의 시민구단 광주는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유망주들이 선수층이 두터운 팀 대신 '기회의 땅'으로 광주를 선택할 수 있지만 현행 구조상 결국은 '유종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자유선발제도에 대비한 정보 수집이 필수지만 광주에는 아직 전담 스카우트가 없다.

연맹이 얘기하는 프로축구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1·2부의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강팀으로 분류됐던 광주는 계속된 선수 유출로 신음하고 있고, 개막전에서 강팀다운 면모를 과시한 상주 상무와 경찰청은 군부대라는 특성상 가을싸움에서 약할 수밖에 없다.

연맹이 강조했던 것과 달리 챌린지 리그가 그동안의 리그로 전락될까 우려되는 이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WBC, 도미니카·푸에르토리코 우승 다툼

'돌풍' 네덜란드 준결승서 탈락



도미니카공화국이 네덜란드의 돌풍을 잠재우고 201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결승에 올라 푸에르토리코와 사상 첫 우승을 놓고 다툰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네덜란드에 4-1로 역전승했다.

이번 대회에서 7전 전승으로 결승까지 오른 도미니카공화국은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노리던 일본을 전날 3-1로 누른 푸에르토리코와 20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대망의 우승컵을 놓고 한판대결을 벌인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푸에르토리코 모두 WBC에서 결승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팀은 이미 이번 대회에서 두 차례 맞붙어 도미니카공화국이 모두 이겼다.

1라운드 C조 3차전에서 4-2로 재역전승했고, 2라운드(8강) 2승 차 대결에서는 완도 로드리게스와 20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대망의 우승컵을 놓고 한판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 광주 출발 왕복 셔틀 운행 안내

광주 - 완도 - 제주항 - 완도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00 광천 터미널 내  
셔틀버스도착 : 완도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 됨  
패 속 선 : 완도 출발 09:00~10:40  
제주 출발 17:50~19:30

소요시간 : 1시간 40분

패속선+셔틀버스요금

편도 37,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단체는 문의 후 확정, 일-제, 제-완 편도는 문의바람

광주 - 목포 - 제주항 - 목포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40분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e-편한세상 앞  
셔틀버스도착 : 목포 국제항 여객선 터미널 앞  
패 속 선 : 목포 출발 09:00~13:20  
제주 출발 17:00~21:20

소요시간 : 4시간 20분

크루즈+셔틀버스요금

편도 30,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단체 불가, 합인율 및 합인 대상자들 문의바람

첫날부터 짝~찬 신나는 제주 여행  
광주 출도착 제주도 2박 3일 매일 출발

완도 쾌속선 169,000원~

목포 크루즈 155,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트리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석부자테마파크, 올레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3일자 교래리 삼나무숲길,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 허브동산, 에코랜드 또는 선녀와 나무꾼, 해녀촌, 친환경농수산물매장

포함사항:광주-완도, 목포 왕복셔틀버스(신착신)왕복선박료, TAXI 일정내에 모든 관광지 식사대금-중식3회조식2회/목포-중식2회조식2회(숙소일일호텔 5~6인실)

불포함사항:기타호텔(1인 10,000원)자유식당완도터미널-완도항 승송

현지 직불관광: 상방산 유람선(17,500원)몽골리안(상소 등)(15,000원) 추가비용:금요일출발 2만원 토요일출발 1만원 2인실 1인실 3만원